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연제나 처음처럼 내 집같이 내 가족같이

소통의 마당

고려월보

제2017-2호 | 2017년 10월호 | www.goryeoh.com

2017년 9월 1일 고려요양병원 개원10주년 가족의 밤 행사 준비 당시 모습

고려요양병원 개원10주년 기념 축시

- 시인 신영희 -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에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직 한 길 함께 지켜온 묵언의 약속
어르신 모시는 극진한 마음입니다.

힘든 일 고비마다 손을 맞잡고
인내하며 격려했던 세월의 나이테
곳곳마다 뿌리내린 나무로 태어나
고려요양병원 울창한 숲 되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병실 창가에
밝고 고운 미소로 살며시 다가와
자식처럼 정다운 그 모습으로
따뜻한 손 내밀었던 온기를 느낍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인생의 황혼녘
옥합속에 고이 담아 쉼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희망의 노래 속에
웃음꽃 피어나는 삶의 터전 이루겠습니다.

어르신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내 부모 형제처럼 섬기고 나누어
따사로운 가을 햇살 산들바람에 실어
삼천리 방방곡곡 선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밤과 낮 시간속에 담겨진 정성
한 올 한 올 씨줄과 날줄 되어
오늘 이곳 기쁨의 깃발로 펄럭입니다.

이호근 병원장님! 사랑합니다.
병원 가족여러분! 사랑합니다.
황금 들녘 풍요로운 결실 이루듯
번창하는 일터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고려요양병원

2017년 9월 1일 고려요양병원이 개원10주년을 맞이하여 병원가족들과 함께 10주년 기념 가족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년 근속직원 및 우수직원 포상,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 글 : 서을해(고려요양병원, 사회복지사)

1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요양병원 가족들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에게 고려란?

병원장님 기념사

10년 근속직원 및 우수직원 3박4일 일본연수 포상

마음의 안정을 주는 편안한 안식처
– 이태수(생활관리과)

초원... 밝음... 건강...
– 박경자(생활관리과)

새로운 시작, 도전...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는 곳
– 하용애(간호팀 1병동)

소통...
– 김헌옥(간호팀 1병동)

땀 흘리는 일터
– 김연옥(생활관리과)

나의 미래
– 김화분(생활관리과)

자연과 함께하는 곳
– 정덕분(원무행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곳
– 권선미(간호팀 3병동)

생활의 활력소
– 김미애(간호팀 3병동)

정겹고 따뜻한 곳
– 강선희(간호팀 1병동)

자연이 함께하는 곳
– 서을해(원무행정과)

더불어 성장하는 곳
– 김현수(진료부)

따뜻한 햇살~
평화로움이 연상되는곳
– 김동숙(진료부)

많은 사람들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는 곳
– 우상영(요양서비스)

모두 함께 나아가고 싶은 곳
– 김미희(원무행정과)

사랑
– 김희숙(진료부)

삶의 에너지
– 박연미(간호팀 2병동)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자화상
– 윤광숙(간호팀 2병동)

희노애락
– 김명숙(간호팀 2병동)

푸른 바다
– 최진희(간호팀 2병동)

제2의 인생
– 장인숙(요양서비스)

어르신에 대한 진심과 존경
– 권순태(진료부)

내가 올 곳
– 김인숙(간호팀 3병동)

마지막이고 싶은 곳
– 강명남(간호팀 3병동)

운명을 달리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묵념

개원10주년 기념 이진아선생님의 축시낭송

고려의 명사회자 전양례팀장님의
사회로 분위기 Up! Up!

김숙자 소장님의 10년근속
노하우 전파시간~!!

늦깎이 행복
– 홍기만(간호팀 3병동)

꿈을 실현시켜주는 곳
– 이동우(원무행정관)

두번째 인생
– 주해동(생활관리과)

나의 삶
– 신순남(요양서비스)

인내
– 김성수(진료부)

사계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넓은 정원의 꽃과 나무들..
작은 텃밭에 고추, 오이, 가지 등
냠냠 맛있는 것들이 많은
따뜻한 우리 할머니 집 같은 곳..

아침마다 밥은 먹고 왔냐
작은 일에도 예쁘다 착하다고 칭찬해주시며
손녀처럼 맞아주시는
따뜻한 우리 할머니 집 같은 곳..

매일 어르신들의 온기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우리 할머니 집 같은 곳..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나에게 고려란
따뜻한 우리 할머니 집 같은 곳입니다.
– 박은경(간호팀 1병동)

정순희 수석팀장님과의 인터뷰

행운권 당첨자 소감발표

마지막 행운권의 주인공

다같이 즐겁게 짠~!!

이쁘게 찍어주세요!

행복한 병원식구들의 모습

10년 근속직원 및 우수직원 해외연수 후기 (3부작)

1부 감동과 충격의 시작... 상아이메디컬센터

일본 병원 현지 연수를 처음 시작하는 버스 안에서 한 분이 소개 중 이런 말을 하셨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동이나 충격을 받을 때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난 이번 연수를 통해 어떤 감동과 충격을 받을까?

일본 오이타 현에 위치한 상아이메디컬센터

첫날 우리는 오이타에 있는 상아이메디컬센터를 방문했다.
상아이메디컬센터를 가기 전 병원 인테리어가 특이하다는 간단한 소개를 김덕진 한국 만성기협회장님으로부터 받았다.

병원에 도착하니 확실히 건물부터 생긴 모양이 특이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병원관계자들로부터 병원 소개를 받고 본격적인 병원시설 현장견학이 이어졌다.

바닥부터 복도에 붙어있는 낙상예방 손잡이, 엘리베이터 문의 색깔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2층은 빨간색, 3층은 파란색...
왜 이런지 물어보니 각층이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층마다 테마를 가지고 색을 다르게 하여 내가 몇 층에 있는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끊임없는 고민에서 나왔을 것이다. 건축 당시부터 전문가들의 개입을 통해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간단한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설의 기초는 이런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머무르는 공간의 배치와 디자인은 환자들이 생활하는 질을 높이고, 처음에 공을 들이고 나면 별다른 노력없이 유지되고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효용성도 아주 높다.

엘레베이터 문과 복도 바닥, 안전손잡이 및 병실 손잡이까지 모두 같은 테마의 색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갔을 때 간호데스크 옆 휴게실 같은 공간에서 환자들과 직원들이 간단한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행정 일을 하기 전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재활치료에 관한 부분에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모습이 지나쳐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도 몇몇 병원들은 휴게실 같은 공간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물리치료사가 그 치료를 하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나 일본은 단지 환자가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재활의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보수를 따로 받지 않고도 환자를 위한 재활치료의 일환으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보수의 차이로 직원들의 행동이 개선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원동력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적어도 나의 눈에는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즐거워 보였다. 교육을 통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론 환자뿐 아니라 직원입장에서의 경험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더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 병원의 직원들이 함께 견학을 하기도 했고 여건상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다.

상아이메디컬센터의 특징 중 다른 한가지는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병원 최상위층에 환자를 위한 온천이 있다는 것이다. 상아이메디컬센터는 일본에서도 가장 온천으로 유명한 벳부와 바로 붙어있다. 오이타 또한 벳부만큼 온천이 좋다고

들었다. 이 온천에는 한가지 비밀이 있다. 병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오이타 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환자들이 온천을 하면서 밖으로는 자기 자신이 살아온 오이타 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으로 환자는 빨리 나아서 내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고 싶다는 맘을 가지고 재활에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서비스 개념으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뿐 아니라 환자의 재활의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활치료의 동기를 확실히 부여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하는 것이다.

상아이메디컬센터에서는 최소한의 병상생활을 위하여 휴게실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아이메디컬센터 최상층에 위치한 온천을 설명하는 직원 (좌) 온천에서 내다보이는 오이타의 전경 (우)

상아이메디컬 센터에서는 와사다 케어센터라는 개호노인보건시설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와사다 케어센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하나는 아이(あい)라는 케어센터만의 화폐가 있었다. 아이(あい) 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면 센터에서 지급되는 화폐인데 어르신들은 이것을 모아 간식거리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아이(あい)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르신들이 센터에 오시기 전에는 사회에서 생산능력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써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을 하듯이 여기 센터 안에서도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월급형태를 받고 그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이가 들어 무능력해진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안에서의 작은 사회를 만들어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자신의 가치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이(あい) 화폐를 통해 케어센터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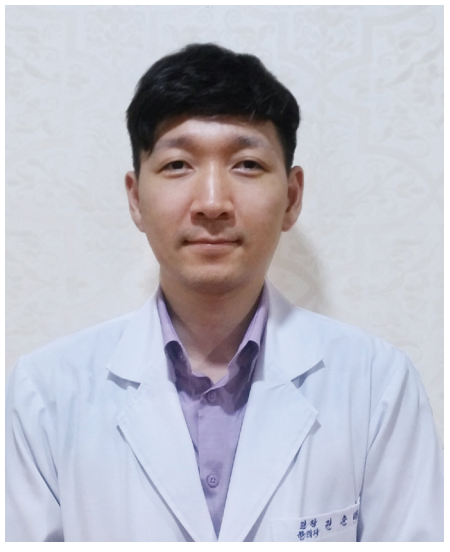
아빠가 되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인데 어르신들을 모실 때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들이 체험으로 즐기는 많은 것들이 어르신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이 많다. 화폐로 경제활동을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의 활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구체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부 재활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병원, 오카병원

다음호에 계속...

– 글 : 유상원 (포항고려요양병원, 행정과장)

[의학칼럼] 사상체질 이야기



고려요양병원 권순태 한방원장

사상의학은 사람을 네 가지 체질로 분류하고 각기 이에 어울리는 치료법과 건강관리법을 제시하는 한의학의 한 부류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과 사회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즉 심리기전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는 뜻이며 이것이 신체의 생리기전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으로 체질을 정확하게 감별하려면 체형과 음식 말고도 약물에 대한 반응과 심리에 대한 자세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대의 통계적 연구에 의해 각 체질에 해당하는 표준체형과 얼굴형을 정리할 수 있어 이것으로 어느 정도 체질 구분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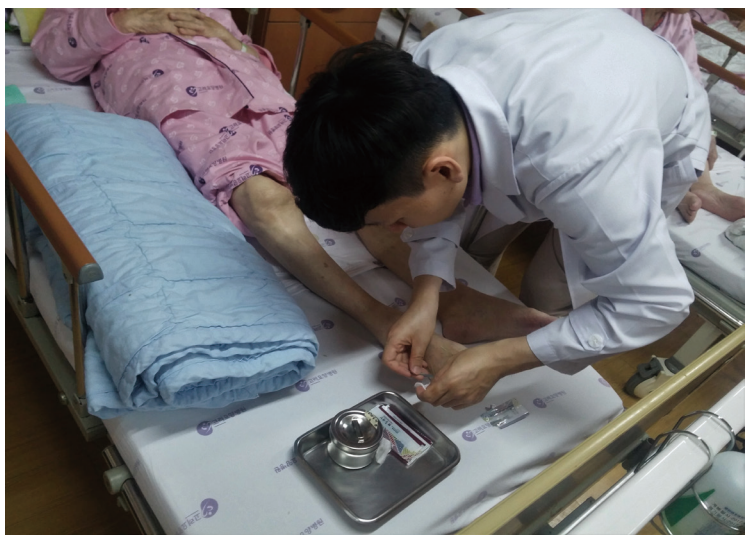
체질별 표준체형은 이렇습니다. 소음인은 계란형 얼굴로 이목구비가 작고 눈꼬리가 처져 있으며 골반 주위가 다른 부위보다 발달했습니다. 소양인은 얼굴이 작고 동그라면서 이목구비의 선이 날카로우며 입술이 얇고 이마와 뒤통수가 튀어나와 있으며 가슴부위가 발달했습니다. 태음인은 이목구비가 넓적하고 눈꼬리가 평평하고 허리가 굵은 일자형 몸매입니다. 태양인은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는 태음인처럼 크면서도 소양인처럼 날카로우며 목과 어깨 주위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한의사로서 사상체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 하면 “그래서 뭘 먹어야 몸에 좋은가요?“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종종 나오는 내용이고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질을 예상하면서 가려 먹느라 고민하지요. 물론 상담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한의학적 조언과 지도를 해 드리고 있지만, 마지막에 항상 덧붙이는 것은 ’가려 먹지 말라’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에 좋은 식품에 대한 얘기를, 특히 방송에서 들으면 얼마 동안 그것이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죠. 다른 것들은 제쳐놓고 그것만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매일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다른 방송에서 저것이 더 좋다는 식품이 나오면 이전의 것은 버려지고 맙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게 좋은 걸까요?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이제마는 고량진미는 입맛을 돋구지만 항상 먹으면 오히려 입맛을 잃게 되며, 체질에 좋은 약도 항상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했습니다. 체질에 맞는 식품이란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각 체질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에 좋다는 식품들은 모두 이 부족함을 채워 주는 것이니 평상시에도 그것들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쁘다는 식품을 무조건 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맨 앞에서 사상체질이란 원래 심리를 분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다른 체질의 사람과 만나며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을 배우려고 하지요. 태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생각과 행동 일부를 자신에 맞게 받아들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생리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체질에 맞는 음식 또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잔병치레가 잦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체질에 나쁜 식품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이때는 그것들이 몸의 부족함을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은 음양에 따라 정반대가 됩니다. 태양인에게 좋은 식품은 태음인에게는 나쁘며, 소양인과 소음인도 같은 식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본인이 먹고 나서 소화가 잘 안되거나 몸에 안받았다 느꼈던 식품들을 가리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것이 실제 체질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권순태 한방원장님 진료모습

그리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사상의학에서는 이를 슬퍼함, 화남, 기뻐함, 즐거움의 네 가지로 크게 잡고 체질에 따라 잘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태양인은 잘 화내고, 소양인은 잘 슬퍼하며, 태음인은 잘 즐거워하고, 소음인은 잘 기뻐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감정들은 살면서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쉽게 과도해지고 이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며, 이에 휩쓸리지 않게 해야 병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마는 사상의학 치료에서 항상 이것을 강조해 왔으며, 실제로 쓴 처방전에서도 음식 섭생과 마음가짐 방법을 적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면 스스로 요즘 자신이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래서 과도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상의학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고 두 측면의 건강을 모두 모색하는 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글 : 권순태 (고려요양병원, 한방원장)

어르신 편지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그리고 그후...

나는 1925년에 경북 포항시 흥해에서 태어난 노인입니다.
왜정시대에 왜놈들에게 혹독한 교육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보통학교라고 했는데, 6년 졸업을 마치고 왜정말엽에 결혼해서 포항에서 20년 동안 6.25 한국정쟁을 말 못할 갖은 고생을 다 격고 살다가 아이들 삼형제 교육관계로 1966년 서울로 상경하여 아들 삼형제 대학과정을 다 마치고 결혼 시키고 손자 4명, 손녀 2명을 보고나니 당시에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1994년에 남편을 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외로운 몸으로 친정이 있는 흥해로 와서 신분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경로당 일도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으며 즐거운 생활을 하던 중 2013년 4월 9일 밤에 혼자 자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나의 소지품을 몽땅 잃고, 그 일로 놀라서 병이나 죽을 지경에 이르자, 자식들이 서울로 데려갔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었으나 죽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요양병원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했지만 마땅한 곳을 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 끝에 이왕이면 친정집에 가고 싶고 친구가 있는 흥해 달전의 고려요양병원이 떠올라서 포항에 살고 있는 아들친구에게 당장 전화연락을 해서 고려요양병원의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해주라고 했더니, 인증제 1등급을 받은 병원이고 이호근 병원장님이 환자를 잘 돌보는 이름난 분이라고 하면서 망설이지 마시고 내려오라고 해서 2015년 4월 27일에 기차타고 포항에 도착해서 고려요양병원에 들어온 후 한 번도 후회 해본 적이 없이 하루하루 소소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그 동안 마음 맞는 친구도 사귀고 행복합니다.

와서 보니 좋은 점은 정원에 색색 다른 수목에 예쁜 꽃과 맑고 깨끗한 공기에 만족하고 병원장님 외에 여러 원장님의 친절에 감사하고 간호사 선생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정신이 바르지 못한 환자를 가족같이 대해 주셔서 이 늙은이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기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보니 나는 못할 것 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 같으면 일반 노동자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식사도 하루 3식을 시간도 안어기고 정성껏 꼭 해주시는 성의가 놀랍기는 하나 불만이 있다면 젊은 양양사 선생님이 만든 음식이 90대 노인 입에 맞는다면 거짓말이지요. 조금만 신경을 써서 어렵지 않고 쉬운 반찬을 우리 전통 반찬 80대~90대 노인 위주로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지요. 된장은 전통 그대로 매주로 담구고 맛도 만점입니다.
된장독도 50개 인대 년도 별로 구분해서 어느 누가봐도 자랑스럽고 놀라운 된장입니다.

두서없는 글을 지루하게 늙은이가 생각나는 대로 한 자 적었으니 90 노인이 하는 말이다 생각하시고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 글 : 311호 정정순 어르신

존경하는 고려요양병원 원장님

저는 팔을 다쳐 입원해 있었던 김*수 환자 보호자입니다, 원장님, 소장님, 부장님, 의사선생님, 물리치료사선생님, 사회복지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요양보호사선생님 등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특히 원무부장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고려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항상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팔 때문에 항상 불편해 하셨는데 부장님께서 목욕도 시켜주시고, 손톱, 발톱도 깎여주시고 여러모로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장님 저는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에야 모든 부분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덕분에 할아버지를 영천호국원에 영광스럽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나마 부장님의 고마움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장님 제가 세월이 흘러 슬픔이 가게 되면 꼭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원장님, 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도 건강과 행운을 두 손 모아 빌어드리겠습니다.

김*자 드림

– 편지글 : 김*자 (김*수어르신 보호자)

화창한 가을날 이동산 부장님 어르신
이발해드리는 모습

2017년 11월 제1회 QPS경진대회를 위한 Kick-off 미팅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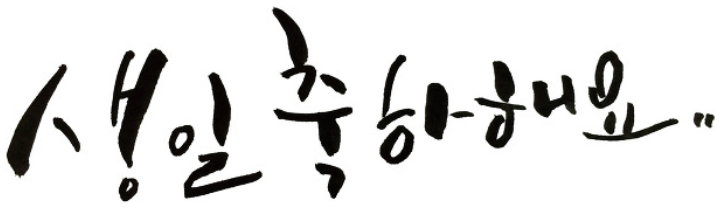
2017년 11월 고려요양병원에서는 제1회 QI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병동의 '두바다찬솔팀', 2병동의 '실버 파이팅! ' 팀, 3병동의 '사랑의 손씻기' 팀, 원무행정과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팀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개월 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첫째 주에는 참여부서 팀장들이 모여 Kick-off 미팅을 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QI 활동계획서 또한 제출하였다. 더불어 QI 경진대회 참여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모습들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 처음 진행하는 경진대회라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병원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글 : 전양례 (고려요양병원, 3병동 간호팀장)

10월 생신자 명단

이 름	음력생신	양력생신
이난여님	08월 18일	10월 07일
방석준님	08월 23일	10월 12일
박양순님	08월 24일	10월 13일
김순덕님	08월 25일	10월 14일
주필석님	08월 26일	10월 15일
이원생님	08월 26일	10월 15일
손수중님	08월 27일	10월 16일
윤동교님	08월 28일	10월 17일
김익경님	08월 28일	10월 17일
조대래님	08월 30일	10월 19일
방혜자님	09월 04일	10월 23일
박일선님	09월 07일	10월 26일
최덕호님	09월 07일	10월 26일
정말남님	09월 09일	10월 28일

이름	부서	음력생신	양력생신
김성수	진료부		10월 07일
배정인	간호팀(2병동)		10월 27일
윤광숙	간호팀(2병동)	09월 03일	10월 22일
김분재	간호팀(3병동)		10월 26일
권수정	간호팀(3병동)	08월 14일	10월 03일
김종례	요양서비스	08월 23일	10월 12일
장인숙	요양서비스	08월 20일	10월 09일



병원 안내

달전고려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로 189
Tel. 054-262-2022

포항고려요양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불종로 73-2
Tel. 054-241-1011